

지역 소식통

정읍시,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연령 제한 폐지

정읍시가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과 연령 제한을 없애고 출산당 최대 25회의 시술비 지원과 30만원 상당의 냉동 난자 해동비를 신설하는 등 난임 부부를 위한 맞춤형 혜택 강화에 나섰다.

정읍시 보건소는 국가형·전북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에 적용되던 소득과 연령에 따른 지원 차등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관내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총 25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 항목이 지원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비급여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혀 냉동 난자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해동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시는 양방 시술을 원치 않는 난임 부부에게 1인당 최대 180만원의 항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예술회관, 가족 뮤지컬 '돼지책' 4월 18일 공연

부안군은 가족 뮤지컬 '돼지책'을 오는 4월 18일 오후 3시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 엄마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브라운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가족극으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공연되는 작품이다.

특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선정해 2016년 우수 공연 작품이며 2017년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사업 우수 공연으로도 선정돼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작품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 063-580-38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폐건물 철거로 생활환경 개선

고창군 대산면 사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사업비 40억 확보·폐건축물 정비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농촌공간 정비사업(정비형)' 공모에 선정되어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제도의 일환이다.

농촌의 유휴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대산면 사거지구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폐축사 14동 △대성고등학교(2004년도 폐교) 13동 △폐건물 8동 등 총 4개소 35개동의 폐건축물 정비하게 된다.

다 사업 단계별 연계 투자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 서비스 공급 시

설이나 정주 기능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고창군은 이번 공모 사업으로 대산면 소재지의 미관을 해치고 붕괴 우려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유휴한 폐축사와 폐교시설(대성고등학교) 등 폐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대산면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개장... 27일부터 예약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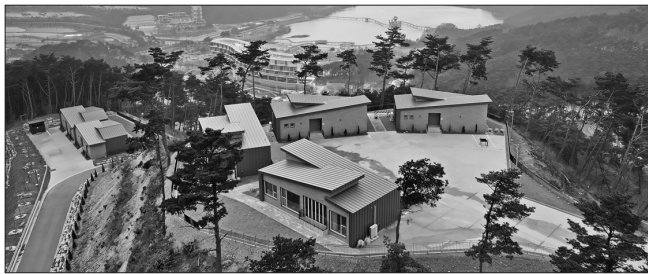
정읍시가 조성한 '내장산자연휴양림'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본격적인 사전 예약 접수에 돌입한다.

용산동 산 47번지 일원 48.8ha 규모의 사유지에 자리 잡은 내장산자연휴양림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도비 포함 175억원을 투입해 완공됐다.

주요 시설로는 산림휴양관·방문자안내소 1동과 독립형 숙박 시설인 숲속의집 9동이 마련됐다. 추가 숲속의집 2동과 오토캠핑장 시설은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숙박 구역 중 9인에서 최대 12인까지 수용 가능한 '숲속의집'은 실내 취사가 가능하지만 4인실로 구성된 산림휴양관 9개 객실은 취사가 제한된다.

시설 이용료는 객실 규모와 성수기·주말 여부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1만원까지 책정됐다. 시는 이용객 부담을 덜기 위해 정읍시민에게 비



수기 주중(일~목) 50%, 성수기·주말 30%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전북사랑도민, 자매결연도시 주민, 임산부·난임부부 등은 비수기 주중에 한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이용객에게는 결제 금액의 약 10%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울 방침이다.

예약은 산림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읍시민·고창사랑기부제 답례품 사용자는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일부 시설에 대한 우선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잔여 객실은 5일부터 일반 예약으로 전환된다. 상세한 예약 안내는 누리집 또는 내장산자연휴양림 방문자안내소(063-536-57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적극행정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1년 하반기 성과 점검·이번 종합평가 모두 '우수'... 적극행정 선도도시 위상 '빛났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6년(2025년 실적)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21년 하반기 성과 점검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군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시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는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지난 5년간 꾸준히 이어온 행정

혁신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군은 2022년(21년 하반기 성과 점검)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2022년 실적), 2024년(2023년 실적), 2025년(2024년 실적)에 이어 올해 2026년(2025년 실적) 평가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우수기관 타이틀을 지켜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도 잇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업무 역량을 증명해 왔다.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 개선,

이행 성과(우수사례), 체감도 등 5대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군은 공직자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 보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은 5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적극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감사나 소송의 부담 없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6년 정읍 맛집' 찾는다

제과점·휴게음식점 등 20개소로 확대... 내달 3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음식점을 발굴하고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 '2026년 정읍 맛집'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은 기존 일반음식점에 국한했던 대상을 휴게음식점·제과점까지 새롭게 추가해 선정 규모를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해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다. 참여 희망 업소는 지정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정읍시 보건소 위생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진행한 숨은 맛집 추천 설문조사에서 많은 표를 얻은 업소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 업소 지정에 유지 중인 곳에는 심사 시 별도의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시 누리집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읍 맛집으로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공



식 현판과 지정패가 수여되며 상수도 요금 30% 감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우선 지원, 시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등 다채로운 혜택이 주어진다.

세부 제출 서류와 선정 절차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보건소 위생관리팀(063-539-690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익)는 25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지역의 생활 밀착형 사회서비스 등을 통한 삶의 균형을 강조했다. 황혜숙 의원은 폐목재 화력발전소 백지화와 관련, 정읍시의 강력한 연장불허 요구와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으며, 한선미 의원은 슬레이트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부속건축물 일괄 정비 추진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안전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기) 소관으로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아바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고경운·이상길·정상철·송기순·최재기·오명제·서항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가결했다.

이어, 황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의 회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사업의 점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푸디스트, 인재채용·농산물 활용 '상생협약'

고창군이 25일 군청에서 고인돌휴게소 운영사인 (주)푸디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농특산품 마케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창군수와 하동열(주)푸디스트 상품부장이 참석했다. 사조그룹 계열사인 (주)푸디스트는 2025년 사내안고숙도로 고인돌휴게소의 운영위탁자로 선정돼 최근 리뉴얼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방문객들의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협약에선 고창고인돌휴게소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해 지역 내 고용 확대에 나선다. 휴게소 내 팝업 공간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 제품 전시·판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